

국가정책조정회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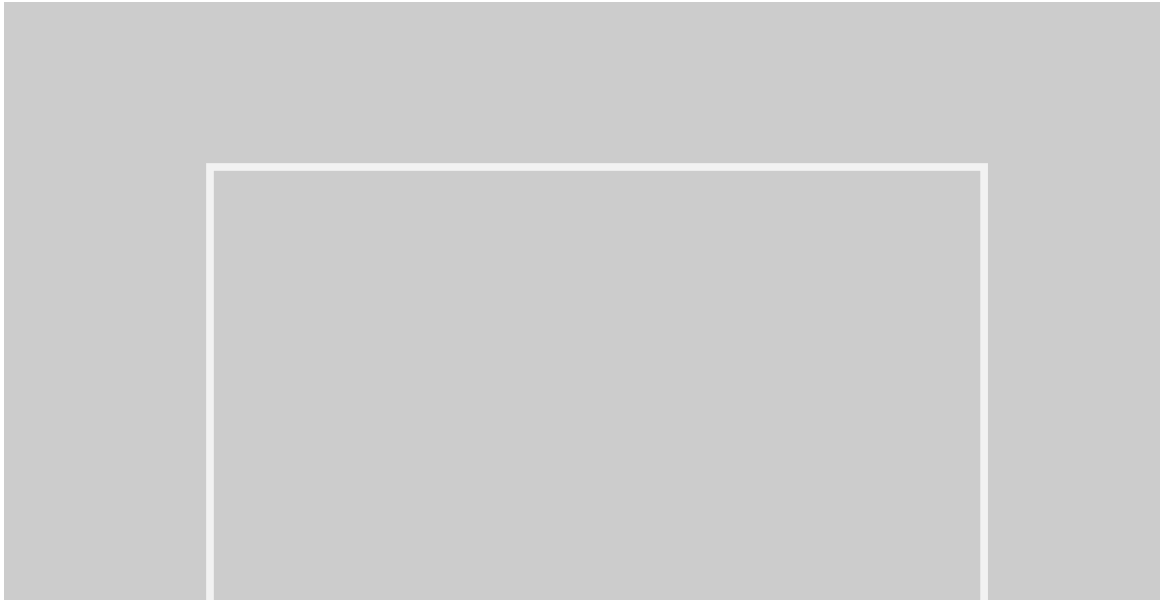
K-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

2025. 11. 27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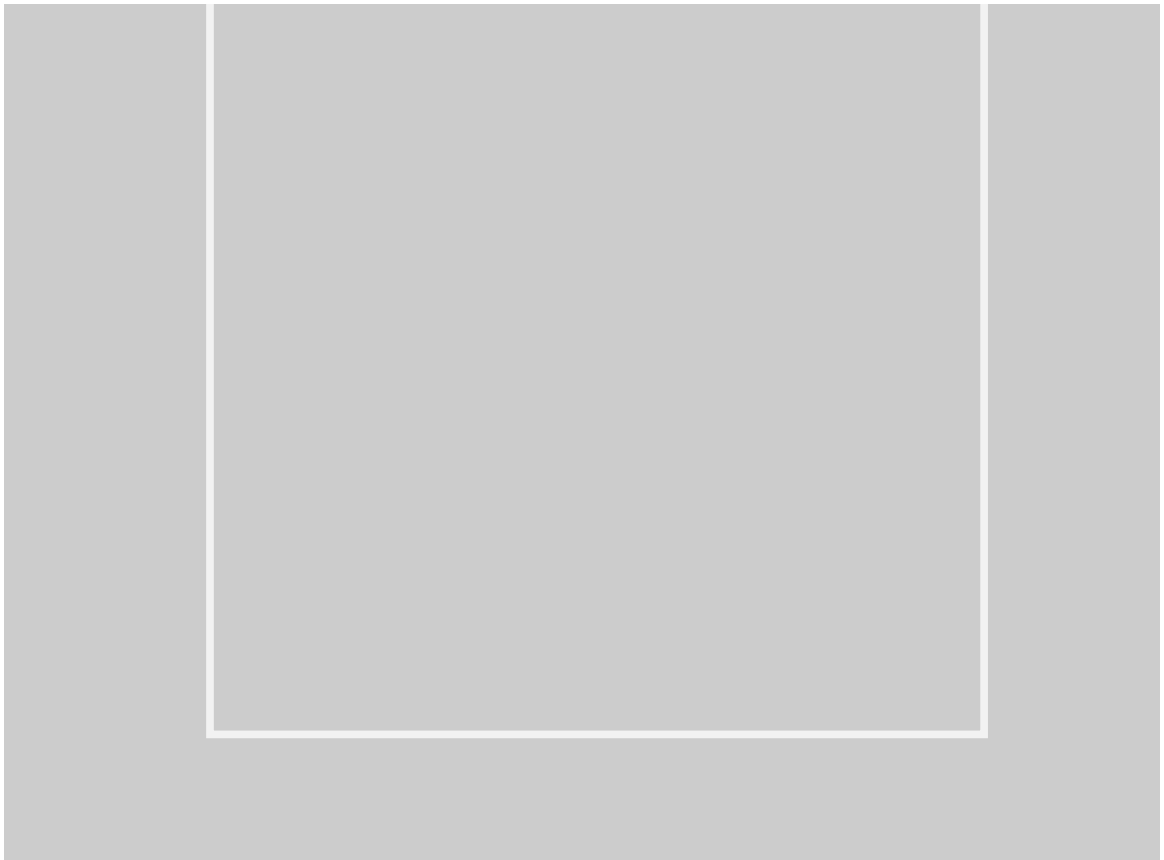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[요 약]	i
I . 추진배경	1
II . K-뷰티 중소기업 성과	3
III . K-뷰티 정책 추진경과 및 시사점	6
IV .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	10
1. [진입] K-뷰티 글로벌 진입 · 성장 촉진	11
2. [확장] 수출전략 다각화로 K-뷰티 시장 확대	13
3. [성장] 민관 협력의 K-뷰티 생태계 확산	18
4. [기반] K-뷰티 기술혁신 및 성장기반 마련	20
V . 추진일정	23



요약



1 추진 배경

- (성과) 활발한 혁신의 국내 뷰티 생태계^①, 세계 최고 수준 제조·유통역량^②, 한류 결합 글로벌 마케팅^③ 등으로 K-뷰티 역동적 성장
 - * 8천여개 중소기업이 203개국 수출, 중소기업 수출품목 연속 1위 ('23. ~ '25. 上)
 - ** 해외 위상 : 수출국가 순위 3위 (佛 → 美 → 韓), 美 수입시장 점유 1위 (韓 → 佛 → 加)
 - (경과) 정부는 튼튼한 민간 생태계를 기반으로 최근 3차례 대책을 마련, K-뷰티의 지속 성장과 대외 무역환경 변화 대응을 뒷받침
 - * (1차) K-뷰티 수출확산방안^{24.7}, (2차) K-뷰티 관세·통상대응^{25.5}, (3차) 온라인 수출 활성화^{25.11}
 - (과제) ① 수출초기기업의 글로벌 진출·안착 애로, ② 글로벌 시장 경쟁구도·트렌드 변화, ③ 수출규제 강화·경쟁국 추격 심화
- ⇒ K-뷰티 혁신브랜드 1) 수출기업화 촉진, K-컬처 소프트파워 활용
2) 글로벌 확장, 3) 민관 융합·협력 생태계 등으로 지속 성장 공고화

2 4대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(진입_Build up) | K-뷰티 글로벌 진입·성장 촉진 |
| ② (확장_Expanding) | 수출전략 다각화로 K-뷰티 해외시장 확대 |
| ③ (성장_Synergy) | K-뷰티 해외 인프라 확대·생태계 확산 |
| ④ (기반_Transform) | K-뷰티 기술혁신 및 성장기반 마련 |

전략 1. (글로벌 진입) K-뷰티 글로벌 진출·성장 촉진

- 청년 소상공인의 혁신 브랜드 수출기업화 촉진
 - “청년” 뷰티 브랜드 창작자를 발굴·육성 (~'30, 300개사) 하고 “강한 소상공인” ('26. 500개팀 발굴) 을 수출 주력기업으로 체계적 육성
 - 수출 준비부터 해외 진출까지 뷰티 수출기업 성장 사다리 마련 ('26)
 - * 수출지원사업 집중 연계·지원으로 준비·초기 → 성장 → 성숙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

□ 신시장 진입 등 온·오프라인 연계 지원 도입

- 신시장·고객 테스트의 온라인 “경험” → 수출시장·고객 확대 중심의 오프라인 “확장” → 품목·시장 다변화의 “신시장” 연계 (‘26~)
 - * ① 온라인 (플랫폼 입점·마케팅 등) → ② 오프라인 (교육, 자금 등) → ③ 온·오프라인
- 온라인 인기제품의 오프라인 수출상품화 전환 지원 (‘26~)
 - * 오프라인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 (컨설팅, 수출 마케팅, 현지화 등) 도입

전략 2. (글로벌 확장) 수출전략 다각화로 K-뷰티 해외시장 확대

□ K-컬처 열기 활용, 입체적 해외 마케팅 (outbound)

- 해외 현지 기념일 등을 활용한 K-컬처 융합 마케팅* 및 인플루언서, SNS 등 K-콘텐츠 연계 해외 소비자 마케팅 지원 (‘26)
 - * 예시 : (K-팝) 아이돌 애용 K-뷰티 체험전, (K-드라마) 드라마 표출 K-뷰티 판촉전 등
- K-콘텐츠 및 연관산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위해 ①협업기획부터 ②상품화, ③홍보·마케팅까지 단계별 협업 밸류체인* 추진
 - * e-커머스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, 주요 문화축제 (뷰티페스티벌 등) 에 K-뷰티 마케팅

□ 지역 거점별 K-뷰티 수출허브 구축 (inbound)

- K-뷰티를 매개로 뷰티 창업기업 제품 중심의 전시, 체험 등 수출 거점으로 육성·활용하고, 26년 시범* 추진 후 확산 (~’30. 8개 내외)
 - * 지방정부 대상으로 공모 후 1~2개 지역 운영 (공모·선정, ~’26.7월)
- 글로벌 상권 (K-뷰티 체험 → 수출) 육성, 뷰티 품목 확산 수출상품화*
 - * 향수, 방향제 등 : ① 수출교육 → ② 브랜딩·포장 등 상품화 → ③ 해외 마케팅

□ K-뷰티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(scale-up)


- K-뷰티·AI 협력 고도화 프로그램 도입, K-뷰티 펀드 (400억원 조성 중) 집중 투자 및 IR 행사 등 투자 로드쇼 (‘26. 2회), K-뷰티론 등 확대

전략 3. (글로벌 성장) 민관 융합·협력의 K-뷰티 생태계 확산

□ K-뷰티 글로벌 성장을 위한 해외 인프라 확대

- K-컬처 인기 주력시장 중심, K-뷰티 거점 재외공관* 지정·운영
* '26년 : 주력시장 (미국, 중국, 베트남), 신흥시장 (사우디) / '27년 이후 점진적 확대
- 신흥시장 등에 K-뷰티 수출 지원 팝업부스 확대 (4개 → '26. 10개), 주요 전략국에 K-뷰티 플래그십 스토어(판매장) 확대 (4개 → '26. 6개)

□ K-뷰티 생태계 확산 및 마케팅 전략 지원

- K-뷰티 중심으로 K-패션, K-라이프 등 주요 4대 소비재 분야 수출 전략품목 육성으로 민관 협력*의 수출지원 프로그램 가동
* 민관 협력 (뷰티 : 올리브영, 패션 : 무신사, 라이프 : 신세계디에프, 푸드 : 롯데마트) 전개
- K-뷰티 위조상품 모니터링·차단 강화 및 공동브랜드* 활용 지원
* 방안 : 뷰티 수출제품에 공동브랜드 활용 지원 (예시 :  + 개별 브랜드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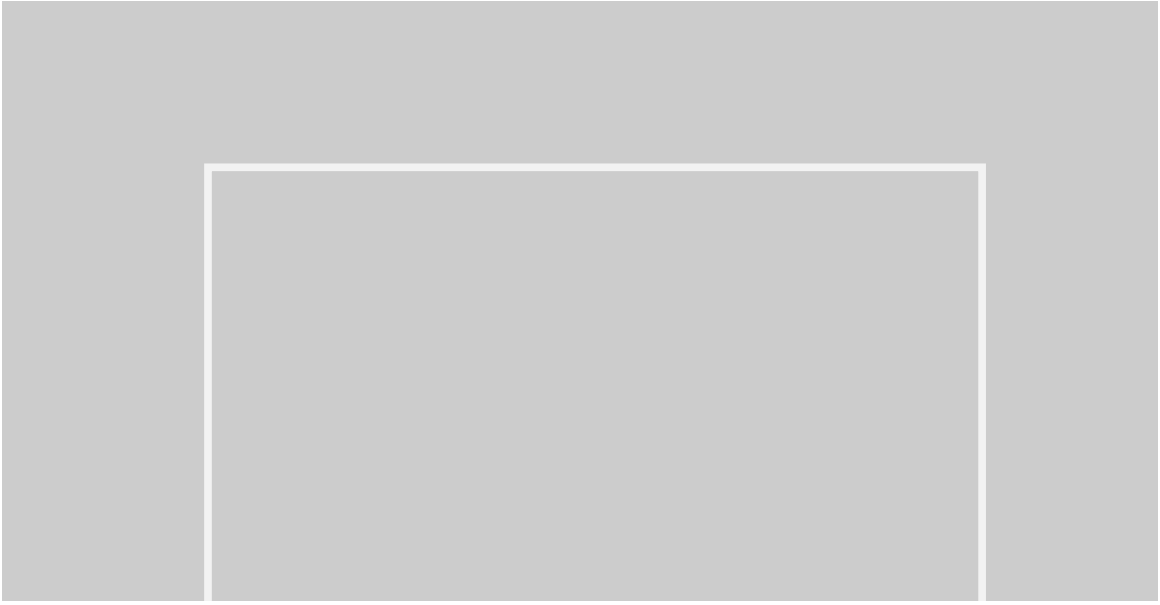
전략 4. (글로벌 기반) K-뷰티 지속성장 기반 공고화

□ 지속가능한 K-뷰티 혁신기술개발 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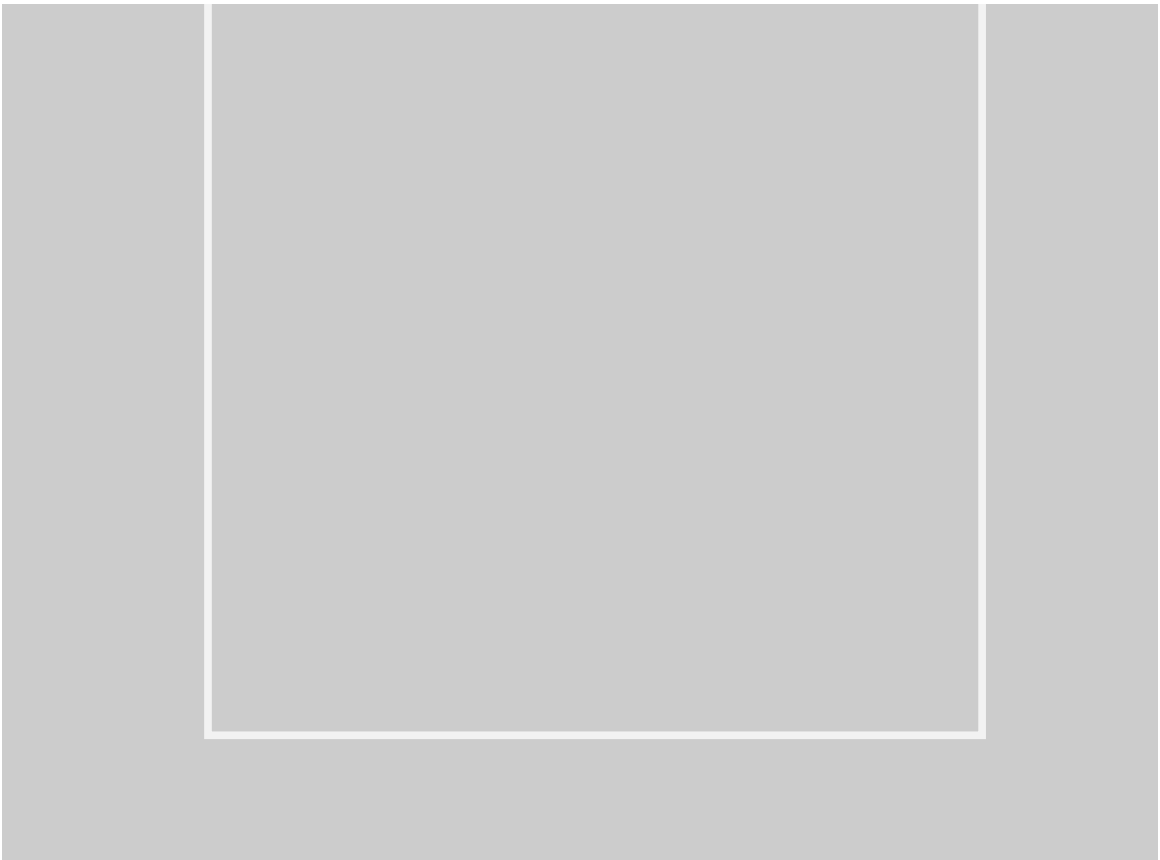
- 시험검사·인증 등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및 원료·생산 등의 전(全)주기 클린뷰티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(~'26. 426억원)
- 신소재·필수 기초소재 국산화 및 피부건강 R&D (~'27. 438억원), → 후속 기술개발 ('28~), 화장품 원료 국산화 ('26)
- K-뷰티 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화장품 제조 특화 R&D 지원

□ K-뷰티 중소벤처기업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

- 화장품 원료 성분 및 해외시장·규제현황 등 AI 활용 정보 통합 ('26), 국제 K-뷰티스쿨 운영 등 K-뷰티 전문인력양성 다변화 ('27~)
- 화장품산업 진흥·육성,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관련법 제정 추진



PH **PH**



I . 추진배경

① K-뷰티는 중소기업과 대·중견 협업 중심으로 수출성장세 지속

- 화장품 등 K-뷰티는 글로벌 3위·미 수입 1위의 든든한 경제 성장축
 - * 국내 위상 : '23년부터 '25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수출품목 연속 1위
 - ** 해외 위상 : 수출국가 순위 3위 (佛 → 美 → 韓), 美 수입시장 점유 1위 (韓 → 佛 → 加)
- 이는 ①혁신이 활발한 국내 뷰티 생태계와 ②세계 최고 수준 제조·생산 역량, ③한류와 결합한 강력한 글로벌 마케팅 효과에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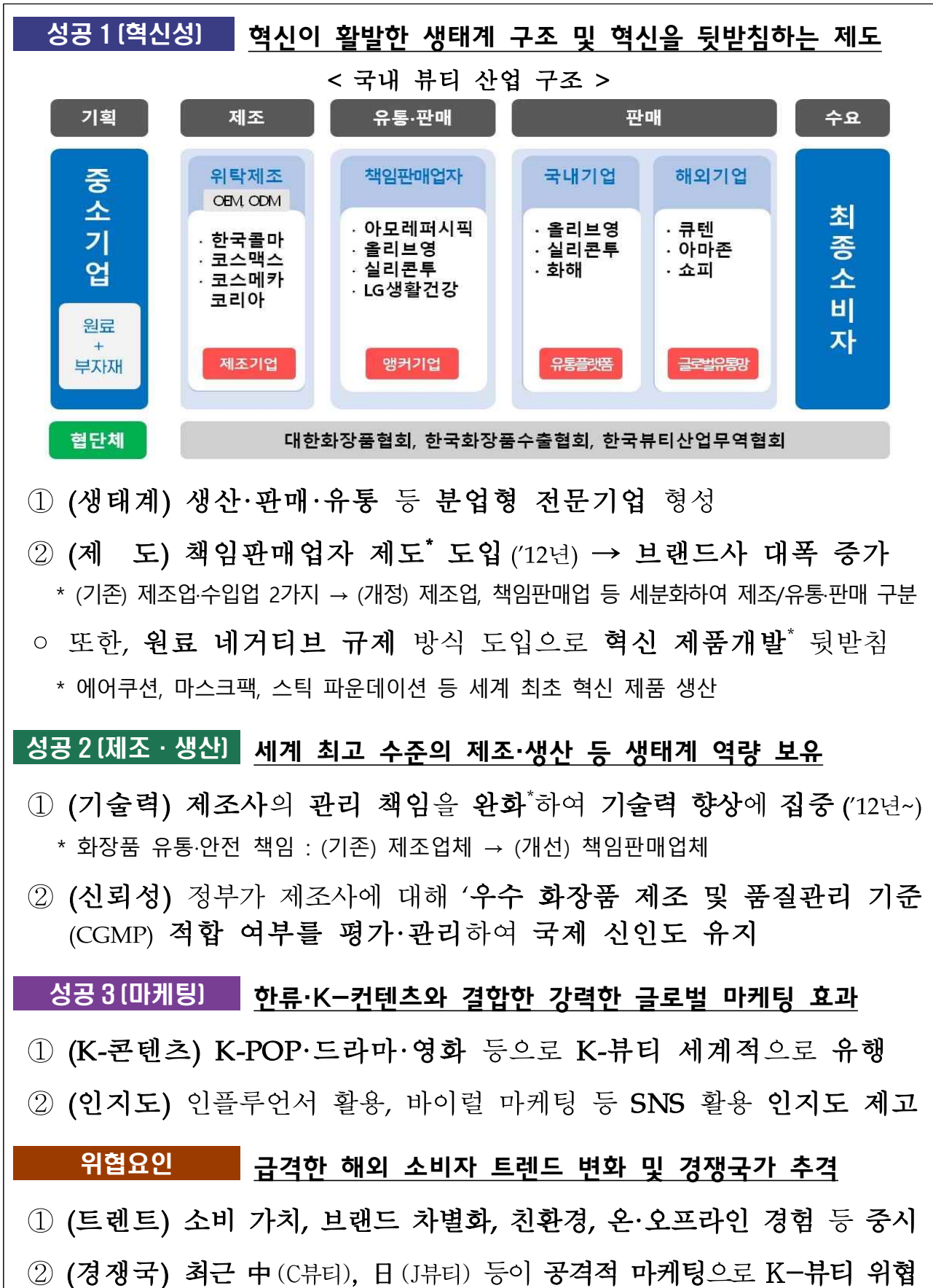
② K-뷰티는 K-브랜드의 성공모델이자 소프트파워 확산의 핵심 동력

- K-뷰티는 한류 콘텐츠 연계 (K-POP 등) 되어 소프트파워 확산 주도
 - * K-뷰티 글로벌 위상 변화 : (과거) 중저가, 가성비 중심 → (현재) 고품질, 프리미엄화
 - ↳ K-POP·웹툰·영화 등 K-콘텐츠와 함께 “메이드 인 코리아” 소비재 인기 증가
-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코스 및 K-뷰티 구매 경험을 경쟁적으로 과시하는 등 글로벌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리
 - * 사례 : APEC 계기 방한한 '캘롤라인 래빗' 美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구매한 한국 화장품 (13종의 K-뷰티 브랜드 제품) 인증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

③ 글로벌 수출규제 강화와 경쟁국가 추격 등은 잠재적 위협요인

-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주요국의 비관세 수출규제, 주변 경쟁 국가 (C뷰티, J뷰티 등) 외연 확장 등은 K-뷰티 공고화를 위협
- ☞ K-뷰티 혁신 브랜드의 수출기업화 촉진, K-컬처 소프트파워 활용 글로벌 확장, 민관 융합·협력의 생태계 조성으로 위상 공고화

【참고】 국내 화장품 성공 및 위협요인



II. K-뷰티의 중소기업 성과 분석

- (수출성과) 8천여개 중소기업 (화장품 수출의 73.3% 비중 / '25.3분기) 이 다양·혁신성 등으로 수출국 (141개국 → 203개국), 품목 다변화 견인
 - * 기초화장품 중심 수출에서 뷰티 디바이스('14년 267개 → '24년 342개) 등으로 확대

< 역대 수출액 추이(억 \$) >	< 기업규모별 수출 증가율 >	< 수출국가 다변화 >
<p>15Y CAGR 22.4% 약17배 성장</p> <p>역대 1위 68억\$ (67.0)</p> <p>'25년 1-3분기 역대 1위 61억\$</p> <p>17배 성장 ('10년 4억\$ → '24년 68억\$)</p>	<p>연평균 8.2% 성장 (대기업 △0.44%)</p>	<p>수출 203개국 ('15년 141 → '25년 203)</p>

- 신흥시장 수출비중 ('15년 5.1% → '25.9월 26.2%) 은 높이고 상위 3개국 (美·中·日) 의존도 ('15. 77.1% → '24. 45.7%) 는 대폭 낮춰 다변화* 뚜렷

* 中企수출 신흥시장 ('15년→'25년): (EU) 4.1% → 19.6%, (중동) 0.7% → 5.0%

주력시장 ('15년→'25년): (미국) 8.6→19.8%, (중국) 42.0→13.5%, (홍콩) 26.5→5.8%

- (성과배경) “연결과 융합의 K-뷰티 생태계”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

* ① 혁신이 활발한 생태계 구조 + ② 세계 최고 수준 제조·생산 + ③ 강력한 마케팅

구분	내용
신제품 혁신	■ 브랜드사·ODM 간 협업으로 신제품 단기간 출시 (3~6개월)
제조 기술력	■ 소량·다품종 생산 시스템, 클린뷰티·비건 인증 등 규제 기술 선도
브랜드 다양	■ 연간 8천여개 브랜드가 매년 대거 출현하여 틈새시장 공략
콘텐츠 기반	■ 커뮤니티, SNS, 유튜브 리뷰 중심의 콘텐츠 기반 소비자 접근

- (성장모델) “대·중견기업의 확장력” & “중소기업 혁신성”으로 글로벌 장악력을 높여 중소기업 성장 사례 (중견 ↑, 68개 / 최근 5년) 확산

< 코스메카코리아 >	< 실리콘투 >	< 엘앤피코스메틱 >	< 에이피알 >
■ '00년 설립 * 제조 ※ '12년 뷰티 유통 전환 ■ '24년 매출 5,243억원 (수출 : 2,734억원) ※ '00. 中企 → '21년 중견 13회 지원 (스마트공장 등)	■ '02년 설립 * 유통 ※ '12년 뷰티 유통 전환 ■ '24년 매출 6,915억원 (수출 : 6,481억원) ※ '02. 中企 → 졸업유예(~'26) 11회 지원 ('19. GBC 입주 등)	■ '09년 설립 * 브랜드 ※ 메디힐, 마녀공장 ■ '24년 매출 2,489억원 (수출 : 935억원) ※ '09. 中企 → '21년 중견 8회 지원 ('16. 수출컨소시엄 등)	■ '14년 설립 * 디바이스 ※ '24년 뷰티기기로 다변화 ■ '24년 매출 7,228억원 (수출 : 3,998억원) ※ '14. 中企 → '23년 중견 10회 지원 ('20. 전자상거래 등)

【 참고 1 】 한국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위상

□ 국가별 화장품 시장규모 : 한국 130억 달러, 세계 9위 ('23년 기준)

* (1위) 미국, (2위) 중국, (3위) 일본, (4위) 브라질 ... (8위) 프랑스, (9위) 한국, (10위) 멕시코

□ 글로벌 화장품 수출국가 순위 : 한국 102억 달러, 3위

순위	1	2	3	4	비고
국가					'24년 기준
실적	233억 \$	112억 \$	102억 \$	91억 \$	

□ 중소기업 수출품목 순위 : 화장품 '23년부터 '25년 상반기까지 연속 1위

순위	1	2	3	4	5	6	7	비고
품목	화장품	자동차	플라스틱 제품	자동차 부품	반도체 제조장비	합성수지	반도체	'25년 상반기

* 화장품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 : '23년 62.6% (53억 \$) → '24년 66.4% (68억 \$)

□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: 한국 18억 달러, 1위




순위	1	2	3	4	5	비고
국가						'24년 기준
실적	18억 \$	13억 \$	10억 \$	9억 \$	7억 \$	

□ 품질관리 수준

○ '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약체(ICCR)' 6번째 정회원국 ('20.12)

→ 화장품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수준 국제적으로 인정

□ 주요 성장 사례

브랜드사 (제품명)	이미지	주요 특징
더파운데르즈 (아누아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여성초 토너 (스킨케어 제품) 브랜드 '아누아 (Anua)' 로 유명 ■ 북미, 일본, 유럽 등 160여개국에 수출 ■ '17.6월 창업, '24년 매출 4,277억원, 수출 2.9억 달러
티르티르 (티르티르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조약돌 형상의 '마스크핏 쿠션'으로 유명한 색조화장품 전문 ■ 일본, 미국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24개국에 수출 ■ '19.6월 창업, '24년 매출 2,166억원, 수출 1.2억 달러
마녀공장 (마녀공장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비건 화장품 브랜드 '아워 비건' 등 출시 ■ 아마존, 코스트코 등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으로 65개국 수출 ■ '12.3월 창업, '24년 매출 1,268억원, 수출 0.2억 달러

【참고 2】 화장품 산업 수출 현황 및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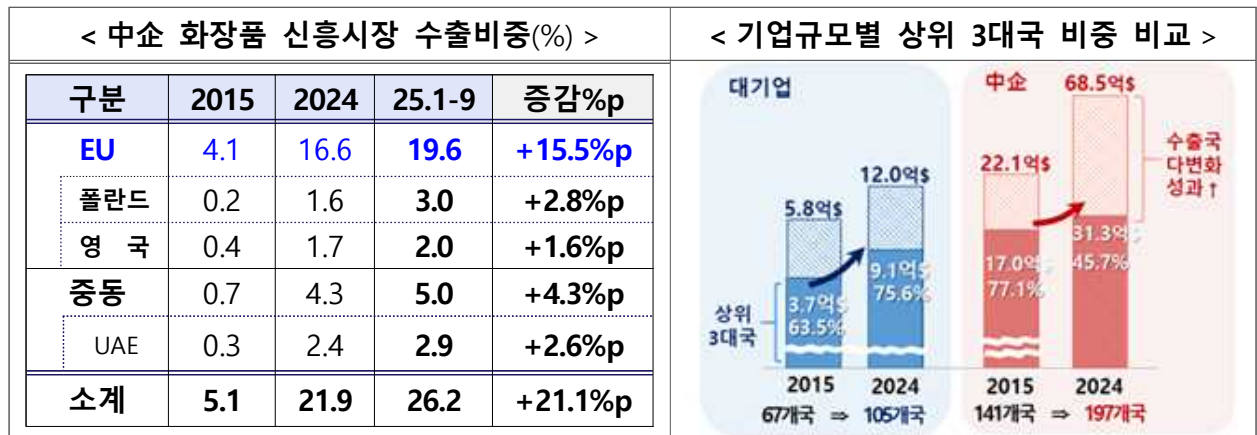
□ 한국 역대 수출액 추이 및 기업규모별 수출 증가율

- 15년간 약 17배 성장,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이 총수출을 견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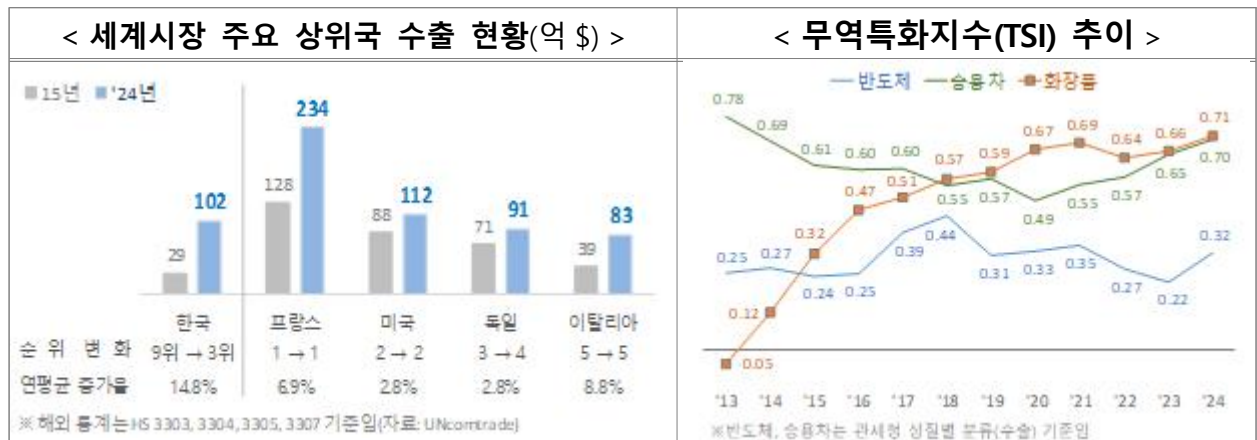
□ 신흥시장 수출 및 상위 3개국 비중 ※ 최근 10년간 추이

- 중소기업 신흥시장 비중 대폭 증가 (5.1% → 26.2%) 및 수출 다변화 뚜렷



□ 글로벌 수출 상위국 순위변동 및 무역특화지수 추이

- 한국 가파른 상승세 (9위 → 3위) 및 타 품목 대비 월등한 경쟁력 보유



Ⅲ. K-뷰티 정책 추진경과 및 시사점

1. K-뷰티 지원정책 추진경과

□ 튼튼한 민간 생태계 토대 위에서 정부는 민간간 연결·협력 촉진,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, “3차례 대책” 마련·시행

① **화장품 수출 증가세** (’23년 中企 수출 1위 첫 등극) 지속을 위한 **민관 협업*** (「K-뷰티 중소·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」, ’24.7)^{중기부·식약처}

- ① **유망기업 발굴·육성**: 아마존·콜마·코스맥스·올리브영 공동 60개사 발굴
- ② **해외 수출규제 대응**: 식약처 공동 설명회,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액인증 제한 폐지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강화
- ③ **K-뷰티 생태계 Level-up**: K-뷰티론 신설(200억원), R&D 트랙(10개 과제) 신설 등

② **美 관세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및 통상 이슈 대응*** 중심 (「K-뷰티 중소·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」, ’25.5)^{부처합동}

- ① **통상이슈**: 화장품 관세대응 자문단 구성, 권역별 화장품 규제·관세 설명회(총 15회)
- ② **신시장 진출 역량 강화**: K-뷰티 박람회(’25.5), 글로벌 플랫폼 ‘K-뷰티 특별기획전’
- ③ **지원 강화**: K-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신설, 소상공인 대상 수출교육 확대 등

③ **온라인을 활용한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*** 추진 (「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」, ’25.11)

- ① **온라인 수출 플랫폼 육성**: 시장/품목별 유망 플랫폼 발굴·육성·활용
- ② **온라인 수출 전략품목 발굴·육성**: 플랫폼사 협업(시장별 데이터 등) 유망품목 발굴
- ③ **물류·통관 지원** 등: 중기전용 물류거점 신설, 우체국 EMS할인 등 협력 강화

⇒ 정부가 힘을 더하는 방식, “K-뷰티 수출 대도약 생태계” 조성

【 참고 】 K-뷰티 협업 생태계 활성화 사례

① 민관 공동의 K-뷰티 유망기업 발굴·육성 프로젝트 도입

- (K-뷰티 100-UP) 아마존, 콜마, 코스맥스, 올리브영이 유망기업을 발굴·육성하는 K-뷰티 전용 프로젝트* 런칭 ('24년부터 정례화)

* K-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, K-슈퍼루키 위드영, K-전략품목 어워즈



- (K-슈퍼루키 위드영) 2개월간 참여기업 매출 140% 성장, 명동 등 관광 상권 매장 입점, 글로벌물 기획전 및 프로모션 지원

- (K-뷰티 펀드) 콜마, 코스맥스 등 화장품 제조 앵커기업과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*하는 민·관 협업 최초 뷰티 전용 벤처펀드 출범 ('25.4)

* 한국콜마·코스맥스 각 200억원(모태 각 60억원) 등 총 400억원('25년말 조성완료 예정)

② K-뷰티 진입장벽 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(K-뷰티론)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금 부담 없이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* 신설 ('25년 200억원)

* 브랜드사-제조사 간 발주 계약 후 브랜드사의 발주서를 근거로 자금 신청·지원

- (R&D·물류) 기능성 원료 및 친환경 용기 개발 등을 위한 'K-뷰티 R&D 트랙' 신설(10개사 지원 중) 및 K-뷰티 특화 풀필먼트 센터* 설치



- (풀필먼트 센터) 인천공항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(스마트트레이드 허브) 내 구축('26년말)하여 제품보관·운송·통관 등 수출 전반 안정적 제공

③ 신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3대 필수역량 강화

- (마케팅) 빅바이어 상담 및 온라인 마케팅 기회 확대



- (코스모뷰티서울 X K-뷰티페스타) 해외바이어(51개국 161개)와 참여기업(439개) B2B 매칭 지원으로 1.1억불 수출상담 및 66만불 현장계약 등 성과('25.5월)

- (규제대응) 美·中 규제강화 및 할랄인증 대응 교육·컨설팅 등*

* 실무자 교육 및 세미나·컨설팅·수출안내서 제공, 사전심사·진단체 도입 등(식약처 협업)

- (제조·기술) 스마트공장 구축 및 cGMP 인증 컨설팅 패키지* 도입, 고부가가치 뷰티제품** R&D 지원 및 화장품 기술로드맵 수립

* 스마트공장 구축(중기부) + cGMP·컨설팅·교육 등 기업지원 서비스(식약처) / '25년 13개

** K-뷰티 R&D 트랙 지원 대상에 미용기기, 피부과학기반제품 등 추가('26년~)

2. 대내외 환경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

① 브랜드 창업기업 ·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 및 안착 애로

- 매년 3천여개의 뷰티 중소기업*이 신규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중이나, 2.5천여개는 유통망 입점 애로 등으로 생존 못하는 상황
* (수출신규) : '20. 3,204개, '25.10. 3,481개, (수출중단) '20. 2,534개, '25.10. 2,448개
- 반면, 수출에 성공적 안착한 5.5천여개* 뷰티 기업은 성장세 확대
* (수출유지) : '22. 1백만 \$ → '25.10. 1.6백만 \$ (전년 동기대비 6.7% 증가)

⇒ 온·오프라인 진입장벽 완화, 준비부터 진출까지 원스톱 수출지원

② 글로벌 뷰티시장 경쟁구도 및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

- 기존 가성비 중심의 K-뷰티 제품 인기가 최근 소비의 가치와 브랜드 차별화 중시, AI 신기술 결합 제품 등으로 빠르게 확산*
* 주요 트렌드 : ① 가치·차별화, ② 개인화·기술, ③ 지속가능·윤리, ④ 온·오프라인
- 해외 인플루언서 등의 SNS 간접경험이 스토리를 형성하여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등 내면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형태로 변화

⇒ AI 결합 신제품 개발 촉진, K-콘텐츠 활용 차별화 전략 전개

③ 뷰티 관련 글로벌 규제 강화 및 주력시장 경쟁 심화

-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*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이고, 최근 중국 (C뷰티) 과 일본 (J뷰티) 브랜드의 국내 공격적 마케팅 등 각축전
* 주요 규제 : 유럽 PPWR (포장재 환경보호), 미국 NRTL (제품·장비 안전성) 등 인증
- 특히, K-뷰티 디자인과 성분, 기능 등을 유사하게 만들어 현지에서 판매하는 모방제품도 K-뷰티의 글로벌 지속 성장에 위협

⇒ 수출규제 대응, 수출전략 다각화, 브랜드 권리보호 강화 지원

【참고】글로벌 뷰티 트렌드 및 현장의 목소리

글로벌 뷰티 트렌드

- ① 가치 + 차별화 : 제품이 주는 가치, 브랜드 차별화 부각
- ② 웰니 + 기능 : 웰니스, 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되는 뷰티 개념
- ③ 개인화 + 기술 : AR가상화장, AI피부진단 등 개인 맞춤형
- ④ 지속가능 + 윤리 : 클린뷰티, 비건, 친환경 등 안전·투명성
- ⑤ 온라인 + 오프라인 : 모바일·소셜의 온라인 & 체험 중시 오프라인
- ⑥ 표현 + 포용 : 외형 중심에서 내면·개성 중시



* 업계 및 해외 주요 매체 (McKinsey, Finance Times, Euromonitor 등) 의견 조합

주요 현장의 목소리

- ① (진입애로) 수출 초기기업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온라인 수출을 공략 중이지만, 글로벌 플랫폼 접근이 어려움
- ② (판로확보) 출시 후 2~3년 내에 시장 반응을 얻지 못하면 사라지는 현실에서, 국내외 브랜드와의 경쟁이 치열하여 유통망 등 판매채널 애로
- ③ (스케일업) 글로벌 변화에 맞춰 AI 활용 등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추진 중이지만, 자체 개발역량 부족 및 비용 부담 등으로 한계 봉착
- ④ (정보부족) 현지 공략에 필요한 시장현황, 판매전략, 규제 대응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, 관련 정보의 접근성 확대가 필요
- ⑤ (권리보호) 해외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었지만, 현지 외국 브랜드가 디자인과 성능이 유사한 모방제품을 만드는 등 IP 침해
- ⑥ (추격심화) 최근 중국 (C뷰티) 과 일본 (J뷰티) 브랜드가 국내에 온라인 자사몰 개설, 팝업 스토어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K-뷰티 위협

* 뷰티 기업 간담회 (25.9월), 코스메틱 中企 설문조사 (25.9월), 온라인 수출 간담회 (25.11월) 등

IV.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

목표

- ◆ 글로벌 위상 : 화장품 수출 2강으로 도약 (~'30년)
 - 화장품 수출금액 ('24) 102억 \$ → ('30) 150억 \$
 - 수출 중소기업 수 ('24) 8,987개 → ('30) 10,000개

4대 추진전략 및 전략별 추진방향

글로벌 2강 도약

Global BEST “K-뷰티”

중소 ⇨ 중견기업 10개 + @ 창출 (~'30년)

전략 1

글로벌 진입
Build up

1. 청년 소상공인의 혁신 브랜드 수출기업화 촉진
2. 신시장 진입 등 온라인·오프라인 연계 마케팅

전략 2

글로벌 확장
Expanding

1. K-컬처 열기 활용 입체적 해외 마케팅
2. 지역 거점별 K-뷰티 수출허브 구축
3. K-뷰티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
전략 3

글로벌 성장
Synergy

1. K-뷰티 글로벌 성장을 위한 해외 인프라 확대
2. K-뷰티 생태계 확산 및 마케팅 전략 지원

전략 4

기반 고도화
Transform

1. 지속 가능한 K-뷰티 혁신기술개발 촉진
2. K-뷰티 중소벤처기업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

전략 1. (글로벌 진입) K-뷰티 글로벌 진입 · 성장 촉진

- ◆ 혁신 브랜드 창업기업의 수출기업화 전환, 온·오프라인 연계 수출상품화 지원 등으로 K-뷰티의 글로벌 진출 및 성장 촉진

1. 청년 소상공인의 혁신 브랜드 수출기업화 촉진

① 청년 뷰티 · 패션 등 소프트파워 창작자 300개사 육성 (~'30) 중기부

- 청년창업사관학교 'K-뷰티 글로벌 트랙' 교육·현지화 전략 → 제품 개발 →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으로 창업단계부터 글로벌시장 지향
- * '26년 50개사 신규 선발 및 '25년 선발한 50개사 후속 연계지원 → '30년 300개사

② 창의성 있는 강한 소상공인을 수출 주력기업으로 육성 중기부

- 독창성 있는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갖춘 창작자, 스타트업 간 협력·융합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 ('26. 500개팀 발굴)

< 강한 소상공인 육성 유형 >

구분	주체	내용
유형 ①	소상공인 + 창작자	■ 디자인, 브랜딩, 패키징 등에 창작자의 무형가치 접목
유형 ②	소상공인 + 스타트업	■ 기획·판로 등에 스타트업의 속도·편의·효율성 부여
유형 ③	소상인 + 소공인	■ 이업종 간 결합과 협업 유도로 상호 시너지 창출

③ 수출 준비부터, 해외진출까지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 도입 중기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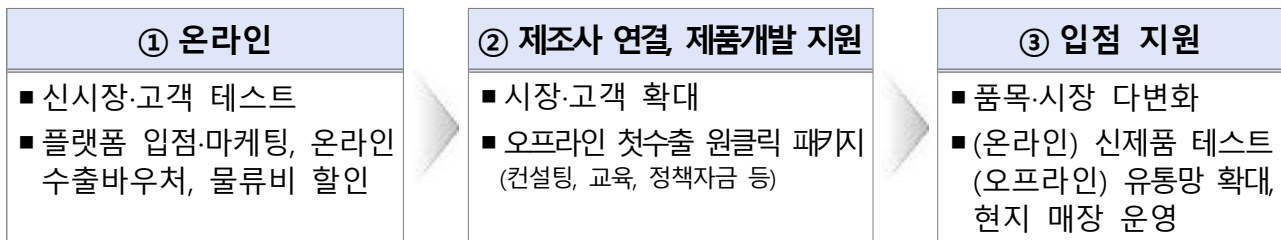
- (준비~초기) 수출바우처* 한도 확대, 기능성·친환경 인증획득** 지원
- * 바우처 : 1억원 → 1.5억원 확대, ** 해외규격인증 : 최대 3년 1.5억원 한도 지원
- (성장~성숙) 수출컨소시엄 전략과제*, 대중소 동반진출** 확대
- * 현지 네트워크 보유 한인단체 등과 협력 프로그램 편성 ('26년 신규)
- ** 사례 : (CJ E&M, KCON JAPAN 2024) 40개 뷰티기업 현지 판촉전, 수출상담회 등

2. 신시장 진입 · 안착을 위한 온 · 오프라인 연계 마케팅

1 온라인 (경험) → 오프라인 (확장) → 신시장 연계 확대 ('26~) 중기부

- 온라인을 통해 시장성을 검증받은 K-뷰티 제품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시장·고객 확대 지원
 - 전략수립 등 컨설팅·교육, 정책자금, 수출바우처, 현지법인 설립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(오프라인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)
 - 품목·시장 다변화를 위한 온라인 수출 (신제품 테스트, 온라인 적합품목·지역) 과 오프라인 진출 (유통망·현지매장 등) 병행 지원
- * 유통사-소비재 기업 협력 해외 유통망 진출, 현지화 지원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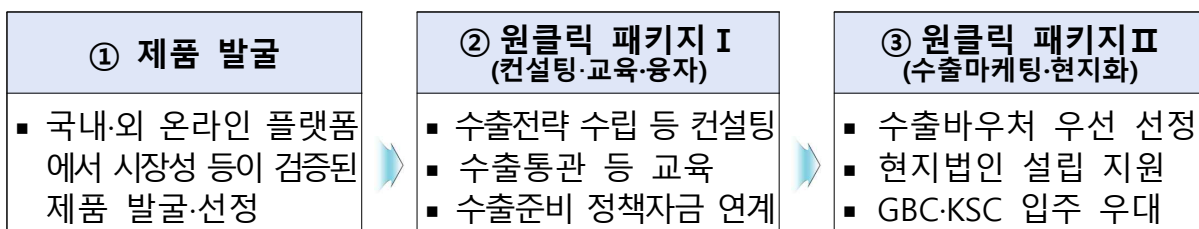
< 온라인 기반 K-뷰티 글로벌 진출 지원 >



2 온라인 인기제품의 오프라인 수출상품화 전환 지원 중기부

- 온라인으로 시장성을 검증받은 K-뷰티 제품의 시장·고객 확대 지원을 위해 '오프라인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' 도입
- 오프라인 진출을 체계적으로 준비·이행 가능하도록 컨설팅, 마케팅, 현지화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

< 오프라인 첫수출 (시장 다변화) 기업 패키지 프로그램 >



전략 2. (글로벌 확장) 수출전략 다각화로 K-뷰티 해외시장 확대

- ◆ 한류를 활용한 입체적 해외 마케팅, 인바운드의 수출전략 다각화, 뷰티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등 정책수단 스케일업

1. 아웃바운드 : K-컬처 열기 활용 입체적 해외 마케팅

① 해외 기념일 등 활용한 'K-컬처 융합 마케팅' 추진 문체부·복지부·중기부

- 현지 대세 K-트렌드와 융합한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(GBC 등 주도) 으로 해외 주요 행사* (한국문화원 협력, 국경일 행사 등) 계기 홍보 강화
 - * 융합 마케팅 예시 : (K-팝) 아이돌 애용 K-뷰티 체험전, (K-드라마) 현지 드라마 표출 K-뷰티 판촉전, (K-푸드) 전시·상담 참여 시 현지 한식당 시식 바우처 제공 등
- K-뷰티 수출 주요국 대표적 기념일 등과 연계한 “K-뷰티 혁신 사절단” 등 해외 마케팅* 프로그램 (제품홍보·상담, IR 등) 시행
 - * 콘텐츠와 K-뷰티 제품을 결합하여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으로 한류 IP 활용 제품 기획 과제 발굴, 제품개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

② 인플루언서, K-콘텐츠 활용 해외 소비자 마케팅 확대 문체부·복지부·중기부

- 현지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 또는 대행사 등을 활용하여 SNS, 전문서적, 방송매체 홍보 제작 및 마케팅 지원



• **비엠코스** : 美 유명레퍼 '카디비'가 보령머드 (비엠코스 지역 연고자원) 를 활용한 '비알머드' 제품을 SNS에 언급, 매출 2배 증가 및 미군 PX 납품 진출

- K-콘텐츠 및 연관산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위해 ①협업기획부터 ②상품화, ③홍보·마케팅까지 단계별 협업 밸류체인* 추진
 - * e-커머스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, 주요 문화축제 (뷰티페스티벌 등) 에 K-뷰티 마케팅

2. 인바운드 : K-뷰티 수출허브 구축 및 글로벌 상권 육성

1 지역 거점별 K-뷰티 수출허브 구축 기재·문체·복지·중기부, 식약처

※ '26년 K-뷰티 클러스터 예산 30억원 신규 확보

- (추진개요) K-뷰티를 매개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신생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 무대로 활용하여 지속 성장 도모 (~'30, 8개 내외)
 - * 외국인 관광객 등 K-뷰티 체험·마케팅, 전후방 산업 연계, 지속성장 기반 제공
 - (중점지원) 뷰티 창업기업* 제품의 전시, 체험, 바이어 상담 등 수출유망제품의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지원
 - * 업력3~7년 이하 브랜드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
 - (추진방법) 기본계획 (~'26.上) 을 바탕으로 '26년 수출지원 프로그램 및 규제대응 지원 등 시범 ('26. 30억원) 추진 후 '27년부터 본격 육성
 - * 선정된 클러스터는 국비 (1개소 50억원 내외) 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프로그램 운영
 - (클러스터) 지방정부 중심으로 공모하고, 선정된 지역과 함께 프로그램 등 뷰티 클러스터 로드맵 마련
- 시범 추진하는 '26년은 1~2개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
- * 일정 : 공모·선정 (~'26.7월) → 로드맵 수립 및 시범운영 ('26.下) → 본격조성 ('27~)

< 추진체계 >

관광 · 인프라	중기부	문체부	지방정부
	· 인바운드 K뷰티 마케팅 · 풀필먼트·물류 지원	· 한류 행사 연계 홍보·관광 · K-콘텐츠 활용 마케팅	· 지역축제 등 행사 연계 · 지역 거점 활용 지원
R&D · 인력양성	복지부		
	· 화장품 원료·소재개발 등 피부건강 기반 R&D 지원 · 안정성 평가·규제 대응인력 역량 강화 등 지원		
규제 · 제도	식약처	중기·복지부	
	·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 · K-할랄 인증기관 협력	· 화장품 관련 규제 대응 지원 · 규제·인증 정보제공 강화	

② 로컬 수출 소상공인과 함께 글로벌 상권 육성 복지부·중기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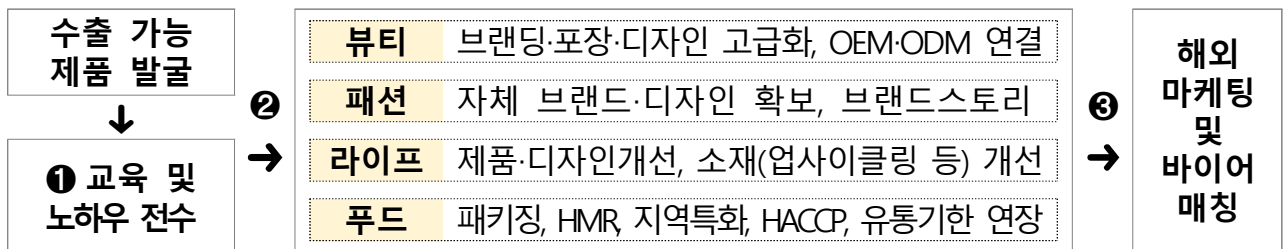
* 한국의 카페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카페거리로 유명한 유명 관광지 외국인 방문객은 '23년 51.7만 명에서 '24년 97.8만 명으로 87.5% 증가 (한국관광공사)

○ (수출 소상공인) 외국인 관광객 관심이 많은 뷰티 분야 (조제향수, 방향제 등) 등 발굴, 로컬체험을 바탕으로 수출상품으로 육성

- 소비재 수출 특화교육 및 품목별 수출상품화 지원 ('26. 95억원, 신규)

* 주요 프로그램 (예시) : (수출교육) 수출 기본교육, 선배기업 수출 경험·노하우 등 전수, (제품개선) 국내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수출형 브랜드·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품·패키징·디자인 등의 개발·개선 지원

< 품목별 수출상품화 지원 방안 ('26~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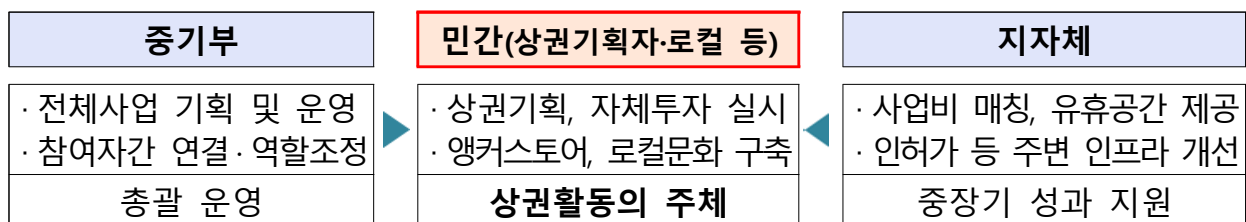
○ (글로벌 상권)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집객·체류·회유공간* 등 다양한 공간·콘텐츠를 결합, 해외 관광객 K-뷰티 체험 ('26. 150억원)

* 집객공간 : 소비중심의 상업공간 / 체류공간 :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독립적 경험공간 / 회유공간 : 보행의 즐거움을 주는 비영리 공간

- 방문객의 경험·가치 소비 경향에 맞춘 앵커스토어 (브랜드) 육성, 로컬인프라 확충 등 글로벌 상권 창출 지원

* 복지부 : 체험·홍보관인 K-뷰티플레이 확대 (2개 → '26. 3개) 및 기존 공간 리모델링으로 해외 관광객 체험 지원 강화 / '21년 이후 방문 32만명, 체험 서비스 이용 9만명

< 추진체계 >



【 참고 】 K-뷰티 클러스터 시범 추진 예시 ('26년)

1 임대매장 및 팝업스토어

-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상권에 공간(건물) 단기 임차 등으로 브랜드관, 플래그십 스토어 등 인디·신생 제품 중심으로 구성

< 팝업스토어 조성 (예시) >



2 K-뷰티 전시체험관

- 메이크업 체험, AI기술을 활용한 피부진단, 다양한 뷰티 제품 (스킨케어, 색조화장품 등) 경험, 외국인 전용 체험공간 등으로 구성

< 뷰티 체험관 운영 (예시) >

공간구성	운영방안	예시
메이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메이크업을 체험하고, 전문가를 통한 1:1 상담 진행 등 전문적인 설명과 제품 추천 공간 · 피부진단 등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	
제품테스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스킨케어, 색조화장품 등 다양한 뷰티 제품 직접 체험 공간으로 사용법과 효과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제품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	
외국인 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영어안내를 포함한 다국어 안내판을 제공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· SNS 핫템 및 매장 한정 제품판 제공 등 	

3 글로벌 K-뷰티 관광 허브화

- K-뷰티, 의료·웰니스 관광 등을 테마로 외국인 방문 및 모객 유도를 위해 뷰티관광 상품 개발 및 글로벌 OTA(온라인 여행사) 참가 확대
- 클러스터 내에서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 전시·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수출 확대 도모

3. 스케일업 : K-뷰티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
1. 뷰티·헬스케어 등 「AI 협력 고도화 프로그램」 도입^{중기부}

- 중소·벤처기업의 뷰티·헬스케어 제품에 창의·혁신적 스타트업 AI 기술을 결합, 제품 고도화 및 신규 판로 확보 ('26년, 초격차 프로젝트)



• **예스킨** : 소비자 피부 데이터 (피부타입, 민감도 등), 사용자 피드백 등을 AI 플랫폼화하여 화장품, 탈모방지샴푸, 의약외품 등을 개발하여 시판

* 뷰티·헬스케어 제조 중소·벤처기업^{수요기업} & (공급) AI 스타트업^{공급기업}

-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뷰티·헬스케어 과제를 발굴하여, 기술 검증 (PoC) 등을 위한 **협업 프로그램** ('26년, 5과제 시범도입) 신설

* (예시) AI 기반 맞춤형 화장품 추천 + 추천 성분으로 화장품 제조 → 고객 맞춤형 화장품

2.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한 브랜드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^{중기부}

- (뷰티펀드) K-뷰티 펀드 (400억원 조성중) 조성 후, 해외 진출 및 성장 잠재력이 큰 뷰티 제조사, 뷰티테크 스타트업 등에 집중 투자

- (투자 로드쇼) 수출전략품목 IR 행사 및 투자 상담회 개최 ('26. 2회)

* VC와 사전 매칭을 통해 기업별 1:1 투자 상담회, IR자료 피드백 제공

3. 생산자금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^{중기부}

- (정책금융) 수출 준비부터 생산까지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, 화장품 용기 등 맞춤형 필수 부자재까지 활용을 지원

- K-뷰티론 ('25. 200억원 신설) 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용기 등 필수 부자재 구매비용까지 포함, 1회 지원한도* 확대

* (기존) 화장품 생산자금, 1회 1억원 한도 → (개선) 필수 부자재 포함, 1회 1.5억원 한도

- (뷰티보증) 농·생명공학 기반 그린·화이트바이오 분야를 영위하는 성장유망 우수기술 화장품 기업 (원료·용기 등) 에 우대보증 지원

* 보증비율 : 85% → 최대 95% 상향, 보증료율 : 0.2%p 감면

전략 3. (글로벌 성장) K-뷰티 해외 인프라 확대 및 생태계 확산

- ◆ K-컬처 주력시장 중심 거점 재외공관 지정·운영, 신흥시장 등 플래그십 스토어 확대, 수출전략품목 육성 등으로 K-뷰티 성장 촉진

1. K-뷰티 글로벌 성장을 위한 거점 해외 인프라 확대

① K-컬처 인기 주력시장 중심 거점 재외공관 지정·운영^{외교부}

- 「재외공관 중소기업 지원협의체」* 기반 K-뷰티 진출 거점 (주력·신흥·개척시장 구분) 을 지정하여 현지 지원 프로그램** 운영 ('26~)

* 재외공관 주도로 현지 진출기관·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

** (프로그램 예시) ① 현지 판촉전, ② 현지 네트워킹 지원, ③ 마케팅 교육 등

< K-뷰티 진출 거점 재외공관 지정(안) >

미국 주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1위 ('24년 1,357백만불) ■ 소셜미디어(인스타, 틱톡 등) 기반 바이럴 확산 기대 등
중국 주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2위 ('24년 1,065백만불) ■ 한한령 완화 가시화 등으로 수출 증가 기대
베트남 주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지속 성장 ('23년 385백만불 → '24년 450백만불 / 수출 4위) ■ 베트남 뷰티 시장 지속 성장(연평균 7%~10%), 아세안 시장 진출 거점 등
사우디 신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2배 이상 증가 ('23년 28백만불 → '24년 59백만불) ■ 중동 시장 거점으로 유럽-아프리카 확대 기회 등

※ '26년 : 시범운영 (4개 거점) → '27년 이후 : 점진적 확대 추진 (5개 거점 이상)

② 신흥시장 등 K-뷰티 수출 촉진 위한 플래그십 스토어 확대^{복지부}

- (팝업부스) 해외 팝업부스 운영으로 제품 전시·홍보 마케팅, 현지 소비자 반응 등 K-뷰티 수출 확대 촉진 ('26. 6개 추가)

* '25년 : 팝업부스 4개국(독일, 대만, 스페인, 이탈리아) 선정 및 운영 ('25.6~)

- (판매공간) 주요 전략국 판매장 운영을 통한 제품 인허가, 물류·통관, 전시·판매, 마케팅 등 전주기 단계별 수출 지원 ('26. 4개 추가)

* '25년 : 4개소 → '26년 : 뉴욕, EU에 대형 화장품 판매장 신규 설치 등 8개소

2. K-뷰티 생태계 확산 및 마케팅 지원

1 K-뷰티 → K-패션, K-라이프 등 수출전략품목 육성 중기부

- K-뷰티를 중심으로 패션 등 주요 소비재 간 연계·융합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의 시너지 효과 창출

* 예시 : K-뷰티 페스티벌 + 패션 전시회, 푸드 시식 행사 등 체험기회 제공

- 대형 유통사*와 협업을 통해 시장성,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소비재 기업 발굴 (연 100개사) 및 원스톱 수출지원

* 앵커 유통사 : (뷰티) OLIVE YOUNG, (패션) MUSINSA, (라이프) SHINSEGAE, (푸드) 롯데마트

< 수출전략품목 원스톱 수출지원 전후 비교 >

구분	As-is	To-be
대상	■ 지원사업별 요건 별도 설정	■ 수출전략품목 별도트랙 운용
신청	■ 기업이 희망사업에 개별 신청	■ 기업 희망을 반영하여 일괄 연계
선정	■ 단계별 평가 선정	■ 필수요건만 검토하여 우선 선정
성과	■ 지원사업별 성과 측정	■ 기업단위별 성과 분석

2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및 브랜드 권리보호 중기부·지재처

- (권리보호) K-뷰티 브랜드의 해외 무단선점과 분쟁대응전략 지원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위조상품 모니터링·차단

* 해외 IP-센터 (8개국 10개) 를 통한 초동대응 및 위조상품 현지 실태조사·단속 지원

- (전략수립) 공동브랜드* 활용, 현지 국가에서의 IP 권리화 및 현지 본격 진출 마케팅·법률 컨설팅 등 지원 ('26~)

*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신생 중소 브랜드사가 한국 제품의 프리미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희망기업에게 브랜드 K 활용을 지원 (예시 : **K** + 개별 브랜드명 병기)

전략 4. (글로벌 기반) K-뷰티 기술혁신 및 성장기반 마련

◆ 친환경·클린뷰티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, K-뷰티 제조현장 스마트화 등으로 K-뷰티의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추진

1. 지속가능한 K-뷰티 혁신기술 R&D 지원

① 친환경·클린뷰티 등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^{복지부}

- 시험검사·인증·피부임상 및 소재 효능평가 등 천연물 화장품*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**

* 식물, 동물 등 자연 유래 성분이 주성분인 화장품

** 남원 천연물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('23~'26, 총 190억원)

- 원료·생산·포장의 전주기 클린 화장품 기술지원 인프라* 구축

*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지원센터('24~'26, 총 236억원)

② 부가가치 높은 신소재·피부건강 등 기술개발^{복지부}

- 고부가가치 소재기술 개발 및 필수 기초소재 국산화, 피부건강 등 연구개발 지원('23~'27, 438억원)
- AI 효능 평가기술, AI 활용 소재 발굴·최적화 기술 개발 등 후속 사업 기획·추진('28~)

③ 친환경 소재 공급 및 화장품 원료 국산화 가속^{복지부}

- 원료 국산화*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품질·효능 시험 및 원료 양산 장비 등 지원('26년 신규 43억원)

* '23년 기준 한국의 화장품 원료 수입 비중은 72%로 추정되며, 특히 유화제, 자외선 차단제, 폴리머, 보존제 등 기초·범용 소재 수입액이 큼

4 **K-뷰티 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품질관리 지원 확대** 복지부·중기부

- (제조현장)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을 위한 K-뷰티 제조기업의 고도화 수준의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



• **코스메카코리아** : AI를 활용한 최고 수준 지능형 공장 구축
 * '19년, '21년 스마트공장 → '22년 'K-등대공장' (~'26.1월까지 레벨4 진행 중)

- (품질관리) 뷰티분야 우수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 충족을 위한 cGMP* 인증 컨설팅 이후 스마트공장 구축 연계 지원 확대 중기부·식약처

* 미 FDA의 우수 화장품 제조·품질관리 기준(current **Good Manufacturing Practice**)

5 **화장품 제조 등에 특화된 기술개발 및 지역연계 실증** 중기부

- 제조 특화 분야 Multi AI Agent 기술개발 지원 ('26년 12개 과제 내외)

* 예시 : 화장품 성분 공정 최적화 AI Agent - 성분 배합과 제조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처방 조건 자동 도출 및 예측 가능한 품질 설계와 공정 자동화 가능

- 제조AI센터* 중심으로 화장품 제조 공정 AI PoC 실증, AI 활용 관련 컨설팅 및 재직자 교육 등 지원

* 충북지역 소재, 융합바이오(바이오, 화장품, 의료기기) 제조기업 AX 추진

6 **화장품 물류센터 구축 및 주요 해외거점 정보 제공** 복지부·중기부

- 미국 내 화장품 물류센터 구축 및 권역별 핵심물류거점 정보 제공·신청, 통관·배송 추적 등을 위한 민간 물류플랫폼 연계

< 미국 내 화장품 물류센터 구축 개요 >

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K-뷰티 중소·중견기업	·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고, 美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물류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	

* 풀필먼트 (fulfillment) : 고객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고객에게 배송되기까지의 모든 과정(상품보관-제품선별-포장-배송-처리)을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

2. K-뷰티 중소벤처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

① K-뷰티 관련 규제정보 및 맞춤형 컨설팅 강화^{복지부}

- (화장품종합지원센터)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글로벌 전문가 풀 기반 맞춤형 컨설팅 추진 ('26~)
- (안전성 정보제공 확대) 수출 시 필요한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및 국가별 시장·규제정보* 통합 지원
 - * 천연성분 문헌자료 수집 ('25년 15종 → '26년 500종 이상), 국가별 규제 가이드라인 ('26년 인도네시아 등 신규 4개국), 규제 정보 교육 및 세미나('25년 1,000명 → '26년 1,200명)
 - 해외 규제 및 시장 정보 등 AI 활용 정보 통합 추진 ('26. 10억원),
- (OTC 등록) 美 비처방의약품 (OTC*) 제조소 등록 컨설팅 ('26~)
 - * Over-the-Counter :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자외선차단제, 여드름개선제 등을 별도 규제

② 뷰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체계 다변화^{복지부}

- 오송 국제 K-뷰티스쿨 운영으로 내·외국인 대상 미용, 메이크업 등 뷰티 전문인력 양성체계 다변화 ('26~)

③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등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^{복지부·중기부}

- (복지부) 「화장품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정을 추진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* 마련
 - *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,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로 정책조정, 해외진출지원 등
- (중기부) 중소·벤처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범부처 총괄 기능 수행, 완결성 있는 지원 기반 마련 (지원법률 제정 추진, '26~)
 - * 「중소·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」^{가칭} 제정 (지원기능, 재원 등 반영)

V. 추진일정

정책 과제	시기	부처·기관
1. (글로벌 진입) K-뷰티 글로벌 진출·성장 촉진		
■ 청년 소프트파워 창작자 발굴·육성	'26~	중기부
■ 강한소상공인을 수출 주력기업으로 육성	'26~	중기부
■ 수출기업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 도입	'26~	중기부
■ 온라인 기반 신시장 개척 및 오프라인 연계 확대	'26~	중기부
■ 온라인 인기제품의 오프라인 수출상품화 전환	'26~	중기부
2. (글로벌 확장) 수출전략 다각화로 K-뷰티 해외시장 확대		
■ 해외 기념일 등 활용한 K-컬처 융합 마케팅	'26~	문체·복지·중기부
■ 인플루언서, K-콘텐츠 활용 해외 마케팅 확대	'26~	문체·복지·중기부
■ 외국인 관광지 등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	'26~	관계부처
■ 로컬 수출 소상공인과 함께 글로벌 상권 육성	'26~	중기부
■ 스케일업을 위한 민간투자, 정책금융 확대	'26~	중기부
■ K-뷰티 중심 수출전략품목 육성	'26~	중기부
3. (글로벌 성장) 민관 융합·협력의 K-뷰티 생태계 확산		
■ 뷰티·헬스케어 등 AI 협력 사업화 프로그램 마련	'26~	중기부
■ 창의적인 브랜드 권리보호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	'26~	중기부·지재처
■ K-컬처 인기 주력시장 중심 거점 재외공관 지정	'26~	외교부
■ 신흥시장 등 K-뷰티 수출 지원 플래그십 스토어 확대	'26~	복지부
■ K-뷰티 중심 소비재 연계·융합 수출전략품목 육성	'25.11~	중기부
■ 4대 소비재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정책 도입	'26~	중기부
4. (기반 고도화) K-뷰티 기술혁신 및 성장기반 마련		
■ 친환경·클린뷰티 분야 개발 인프라 구축	~'26	복지부
■ 신소재 및 피부건강 기술개발, 원료 국산화	'26~	복지부
■ K-뷰티 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지역연계 실증	'26~	중기부
■ 화장품 물류센터 구축 및 해외거점 정보 제공	'26~	복지부·중기부
■ K-뷰티 관련 규제정보 및 컨설팅, 전문인력 양성	'26~	복지부
■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	'26~	복지부·중기부